

반도체 랠리에 국민연금 '잭팟'... 주식 평가액 190조 늘었다

상장사 270곳 평가액 486조118억
삼전·하이닉스 비중 55.7%로 증가
4월까지 기금 운용 수익률 14.18%



따능시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 2분기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상장사 주식 평가액이 한분기 만에 2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70곳의 주식 평가액은 486조1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296조4433억원)보다 189조5684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반도체로 돈벌어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 상승 영향이 컸다. 2분기 평가액 증가 폭이 가장 큰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평가액이 각각 69조1626억원, 82조1407억원 늘었다.

두 종목 증가분 합계(151조원)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전체 주식 평가액 증가분(189조원) 가운데 79.8%를 차지한다. 이

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국내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40.4%에서 지난 6월 기준 55.7%로 확대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SK스퀘어 보유 지분이 11조9953억원 늘어 평가액 순위 3위에 올랐고, 삼성전기는 보유 지분을 10.46%에서 9.95%로 0.51%포인트 줄였음에도 10조원이 넘는 증가액(10조407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삼성물산(2조7278억원 증가), 삼성생명(2조5137억원 증가), SK(2조577억원) 순이었다.

반면, 1분기에 주식 평가액이 크게 올

랐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2분기에는 1조717억원이 감소하면서 평가액 손실이 가장 컸다. LG에너지솔루션(-5737억원), 한화시스템(-4510억원)도 큰 손실이 났고, 카카오(-4470억원)와 네이버(-4153억원)의 주식 평가액도 크게 줄어 들었다.

◆개인은 '반도체 사자'...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역대 최대' 예상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반도체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다시 주가가 오르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개인 투자자의 SK하이닉스 순매수액은 7

조4000억원이다.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6조2000억원이다. 올해 전제로는 삼성전자 51조8000억원, SK하이닉스 48조2000억원어치를 각각 사들였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4000억원, 매출액은 17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1810%, 129% 증가한 것으로, 둘 다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감안하면 '깜짝 실적'을 거뒀다며 목표가를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상반기 성과급 전액 총당금 인식에도 전년 대비 19배 급증한 89조4천억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며 "성과급 총당금을 제외한 2분기 수정 영업이익은 107조원으로 추정돼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라고 평가했다.

미국주식에etak증서(ADR)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도 장밋빛이다. ADR 상장은 오는 10일로 예고되고 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쟁사와 동일 조건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과 규모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에 비해 받고 있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디스카운트는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강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14.18%다. 금융 부문 수익률은 14.20%이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59.71%에 달했다. 기금 운용 수익은 208조6000억원으로, 기금 규모는 1670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도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증시 훈풍에 ELS 발행 늘고 조기상환 급증

금감원 1분기 ELS 운용현황 발표 ELS 상환액 96.4%가 조기상환

국내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발행이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가 상승으로 조기상환이 늘면서 상환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전체 잔액은 소폭 감소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액은 1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24.1%) 증가했다. 상환액은 20조6000억원으로 7조9000억원(62.2%) 늘었으며, 1분기 말 잔액은 93조5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원금비보장형인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ELS는 종목형 상품 발행 확대에 힘입어 5조5000억원이 발행됐고, DLS는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원금지급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는 ELB 수요 증가 영향으로 12조9000억원이 발행돼 27.7% 늘었다.

ELS 기초자산은 지수형이 3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목형은 1조5000억원이었다. 종목형에서는 테슬라(8000억원), 팰란티어(7000억원), 삼성전자(4000억원), SK하이닉스(3000억원)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 발행이 활발했다.

지수형에서는 국내 증시 강세 영향으로 코스피200 편입 비중이 78.7%로 확대됐다.

상환 규모도 크게 늘었다.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7조1000억원, 파생결합사채 상환액은 13조500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3%, 66.7% 증가했다. 특히 ELS는 국내의 주가 상승 영향으로 상환액의 96.4%가 조기상환이었다.

투자 수익률도 개선됐다. 올해 1분기 조기상환 또는 만기상환된 상품의 연환산 투자수익률은 파생결합증권이 6.8%, 파생결합사채가 3.5%였다. 세부적으로는 ELS가 8.3%로 가장 높았고 DLS 4.5%, ELB 3.7%, DLB 3.2% 순이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당정, 2028년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부터 시행

당정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관련 당정 주요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성과와 기후 변화가 기업에 미칠 잠재적 재무 영향 등 비재무적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산업전환,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기업의 경쟁력은 현재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나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얼마나 지



당정이 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화 방안'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은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가 시장에서 주요 평가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공시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 프로세스 개선이 이뤄지고 이는 기업의 성과로 직결될 것이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미래에셋증권 "퇴근길 30분 연금투자 강의"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새단장

미래에셋증권이 연금 고객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세미나의 구성과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했다. 첫 방송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진행된다.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는 바쁜 직장인들도 30분 동안 부담 없이 연금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라이브 세미나다. 연금 투자와 자산배분, ETF, 절세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연금 시장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자산배분을 기반

으로 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미래에셋증권은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맞춰 고객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최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자산배분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연금을 ETF로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팁 6가지를 전달한다. 미래에셋증권 투자와연금센터를 비롯해 세무사, 노무사, 자산운용사 운영역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출연해 연금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



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미나는 미래에셋증권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앱스타(M-STOCK)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퇴근길 30분, 연금 투자 인사이트'를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댓글을 통해 확인한 고객들의 관심사를 향후 방송 주제와 콘텐츠 기획에 적극 반영해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연금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대신증권, kt wiz와 2030 투자자 공략

야구팬 위한 투자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이 프로야구와 연계한 투자 이벤트로 2030 투자자 공략에 나선다. 국내 주식과 ETF,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한 고객에게 kt wiz 홈경기 테이블석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ISA 계좌 투자에는 추천권을 두 배 지급해 장기투자자 절세 혜택을 함께 알린다는 전략이다.

대신증권은 kt wiz파크 테이블석 관람권을 제공하는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프로야구 스폰서십을 활용해 2030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투자 및 세제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오는 8월 4일까지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국내 주식(ETF 포함), 펀드, 채권을 매수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추천권이 지급된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일반 종합계좌보다 추천권을 두 배 제공해 당첨 기회를 높였다.

/허정윤 기자